

이 병 철

&lt;한림의대 교수&gt;

뇌졸중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3대 주요 사망 원인의 하나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고 없이 찾아드는 뇌졸중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질병이다.

뇌졸중은 하나의 질환명이 라기 보다는 뇌혈관 장애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신경학적 장애를 통털어 일컬는 의학용어로 크게는 뇌혈관 파열로 인한 "출혈성 뇌졸중"과 뇌혈관 폐쇄로 인한 "허혈성 뇌졸중"으로 나눌 수 있다. 뇌졸중의 증상은 뇌에 병이 생기는 위치와 크기에 따라 반신불수, 감각마비, 언어장애, 두통 및 구토, 어지러움증, 보행장애 심한 경우엔 혼수상태까지 보일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된다. 증상의 진행과 병의 경과에 있어서도 환자마다 다르고 회복정도와 예후 역시 환자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환자를 처음 접하는 신경과 전문의 조차도 확실한 환자의 예후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

뇌졸중은 뇌로 피의 공급이 갑자기 차단되어 뇌조직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일어난다. 이로 인해 일단 손상을 받은 뇌세포는 활력을 잃고 조직학적 변화를 일으켜 영원히 그 기능을 잃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이 때에 활력을 잃은 뇌세포가 모두 영구적으로 기능을 소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일부는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피의 공급이 금방 이루어 진다면 그 기능은 되살아 날 수도 있다.

# 뇌졸중 발생시의 응급처치

또한 허혈 손상을 받은 뇌조직 주위에는 뇌세포가 붓는 뇌부종이 생겨 정상 뇌조직 압박을 가하는데 뇌졸중의 급성기가 지나 주변의 뇌부종이 서서히 완화되면 뇌졸중 발생 초기에 나타났던 증상들이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다. 만성기에 접어 들어서는 영구적으로 손상된 뇌조직의 기능을 주위의 정상 뇌조직들이 조금씩 떠맡게 되어 점차로 마비 증상들이 풀리면서 움직임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된다.

앞서 말한 뇌졸중의 병리 현상은 발병 후 수시간에서 수일이내에 일어나는 뇌조직

당황하지 말고, 숨이 거칠든 경우 호흡이 원활하도록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넥타이 라든지 허리띠를 풀어주는 것 뿐이다. 특히 의식이 나쁜 환자에게 과학적으로 근거도 없이 소위 「기사회생의 묵약」이라는 전통약제를 입에 집어 넣어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죽은 피를 빼내어 피 순환을 돋는다하여 손가락을 오염된 바늘로 마구 찔러 염증이 생기게 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절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진찰이 끝난 후에는 출혈성 뇌졸중인지 허혈성 뇌졸

지금까지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근본적 완치 요법이라기 보단 뇌졸중의 자연적 회복을 돋고 병의 악화를 막는 대증 요법에 의존하고 있다. 즉, 뇌졸혈인 경우는 외과적으로 혈종을 제거하거나 약물 주입으로 뇌부종을 완화시키면서 뇌조직을 누르고 있는 혈종이 흡수되도록 하는 것이 있고, 뇌혈관이 막혀 생기는 뇌경색에 있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투여하여 뇌혈관이 더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치료가 된다. 이와 더불어 흡인성 폐렴이나 요로 감염과 같은 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 영양 공급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어 주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육창 방지와 마비된 팔 다리 근육의 악화 및 관절이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조기에 물리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한 뇌졸중의 위험 인자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등의 지속적 치료를 통하여 뇌졸중의 2차 예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아직 살아 있는 뇌조직을 되살리는 요법이다. 둘째 방법은 다량의 칼슘 길항제나 뇌세포막의 칼슘 통로를 차단하는 약제의 투여이다. 뇌허혈로 인해 뇌세포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세포외의 칼슘 이온이 세포내로 유입되면서 뇌세포의 괴사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을 억제하여 허혈로 인한 뇌세포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는 혈액희석 요법이 있는데 이는 피의 산소운반 능력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피의 끈끈한 절도를 완화시켜 피 순환이 수월할 수 있도록 일정량의 혈액을 체외로 빼내거나 혈액희석 약제를 주입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치료방법들은 뇌졸중 발생 후 즉시 또는 수시간이내에 이루어져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뒤늦게 병원을 찾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가 매우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출혈이나 뇌부종의 악화등과 같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단점과 적절한 시설과 신경과 전문의사가 있는 뇌졸중 전문병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

뇌졸중에 의해 나타나는 신경학적 장애는 회복되더라도 영원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지만 모든 뇌졸중 환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이 어느정도 가능해질 수 있다.

어느 질병이나 마찬가지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과 같이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가 어느정도는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 혈전용해제 주입으로 막힌 중뇌동맥의 혈류를 제개통 시킨 예.

## 뇌졸중 발생하면 즉시 병원으로 옮겨 CT·MRI촬영으로 진단후 치료해야

의 질적 및 양적 변화에 따라 환자의 예후와 증상 회복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갑작스런 마비증상이 일어나 뇌졸중이 의심되면 지체없이 환자를 병원으로 빨리 옮겨야 한다. 가정에서 알은 일반적 의학상식을 가지고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에게 해줄 응급처치는 전혀 없다고 믿는 것이 옳다.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오직 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정신적으로 불안한 환자로 하여금 안정을 꾀하도록 주위 가족들이

증인지를 확실하게 감별하기 위해 뇌전산화단층촬영(CT 촬영) 또는 핵자기 공명촬영(MRI)을 시행하게 된다. 대개의 뇌졸중 환자들에서 뇌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출혈성 뇌졸중인 경우 출혈량이 많아 뇌압이 매우 상승된 경우에 있어서 압력을 낮추기 위해 뇌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환자에 따라 신중한 선별이 필요하고 또한 의사에 따라 견해도 다를 수 있다.

뇌졸중의 치료에 있어서

것이 보편적인 치료방법이다. 그러나 최근 신경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병리기전이 밝혀지면서 획기적으로 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해보면 첫째가 혈전용해제 요법이다. 혈전에 의해 막힌 혈관을 빨리 찾아내서 그 혈관에 가는 관을 넣어 혈전용해제를 주입해서 혈전을 녹여 막힌 혈관을 뚫어 피의 흐름을 재빨리 정상으로 유도해서 기능이 소실되었지만 생명력은

## 당뇨성 신경장애

### 새로운 치료제로 입증된 비타메진

이런 증상일 경우가 당뇨성 신경장애입니다.

혈액중의 고혈당은 신경조직을 파괴하여 ● 팔다리의 무력감증, 저림, 근육통이 나타난다. ● 시력이 떨어지며 물체가 이중으로 보인다. ● 발기부전과 배뇨가 곤란하다. 이와같은 당뇨성신경장애 증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당뇨로 손상된 신경조직이 살아납니다

대량의 비타민 B群은 인슐린의 생성 및 활성을 촉진하고 신경세포의 부활작용도 우수하여 최근 당뇨성 신경장애, 막막증, 신증, 기타소모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제로 그 약효가 입증되었습니다.

- 손상된 신경조직을 조속히 재생시켜줍니다.
- 소염진통제가 아니면서 진통효과가 있습니다.

이래서 고단위 약효도 다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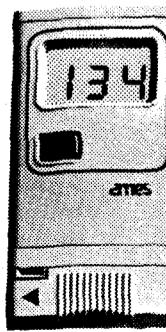
벤토티아민 ..... 69.15mg  
염산 피리독신 ..... 50mg  
시아노코발라민 ..... 500 µg

당뇨성신경장애, 신경통, 기타소모성질환 치료제

**비타메진** 锭  
표준소매가격 50mg, 100캡슐 22,000원

## 10만원대 혈당측정기

혈당측정기의 세계적 권위 미국의 에임스가 사용이 더욱 간편해진 글루코메타GX를 선보입니다.



고기능 저가격의  
글루코메타GX

1. 하나의 버튼으로 조작이 간편.
2. 광전전사법에 의한 완벽한 측정.
3. 10회분을 기억하는 메모리 기능.
4. 반영구적인 수명.
5. 휴대가 간편한 담배갑 크기.
6. 기능과 성능에서 비교될수 없는 가격 16만원.

글루코메타GX